

‘金계란 1인당 한판’...사재기 방지 판매 제한

양동시장 6600원 전년비 57.1%↑...대형마트 20% 할인에 품질 속출 aT, 미국산 달걀 60t 수입...제빵 업계·수입 판매업체 등에 공매 입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형마트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구매 수량을 제한을 뒀다.

당국은 미국산 달걀 60t을 들여와 가격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4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판매된 특란 30개 1판 가격은 6600원으로, 전주(15일)보다 12.6%(740원) 올랐다. 1년 전 가격 4200원에 비해서는 무려 57.1%(2400원) 뚝 솟았다.

광주시 광산구 한 식자재마트 관계자는 “하루 새 특란 1판 가격이 1000원 정도 올라 주말 동안 73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주말이 지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요 대형마트는 달걀 상품의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마트를 통해 달걀을 20% 할인 판매하는 ‘대한민국 농활(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를 기존 27일까지 기한을 늘려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해당 상품은 곳곳에서 이미 품절된 상태다.

이마트는 1인당 1판(30개입)으로 구매량에 제한을 뒀다. 롯데마트는 달걀 개수에 상관없이 1판

당 3판, 홈플러스는 1판만 살 수 있다.

광주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 ‘농활갑시다’ 행사는 원래 28일부터 진행 예정이었으나, 달걀 가격이 크게 올라 2주 앞당긴 15일에 시작했다”며 “달걀을 할인된 가격에 사려는 소비자가 몰려 해당 품목은 이주부터 품절됐다”고 설명했다.

aT는 미국산 신선란 60t을 전자입찰시스템(atbid) 공매 입찰을 거쳐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오는 6월 말까지 신선란·계란 가공품 등 8개 품목 총 5만t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한시 적용하기로 한 농식품부 수입안정 대책에 따른 조치다.

입찰 대상은 식용란 수입·판매 업체, 제과·제빵 업체, 달걀을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 등 실수요업체이고, 입찰 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3~5시다.

공매입찰 참가를 원하는 업체나 사람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서와 입찰유의서약서 등을 작성해 26일 오후까지 aT 지역본부에 등록해야 한다.

판매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a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본사 수급관리처 수급기획부로 전화하면 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달걀 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한 대형마트에 30개 짜리 달걀 상품이 품절됐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 매장은 고객 1인당 달걀 구매 수량을 1판(30개)으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품목의 기본관세율은 8~30%여서 할당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셈이다.

aT 측은 “추가로 도입되는 물량은 가격 상황을 고려해 공개경쟁입찰과 실수요업체 직접 공급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전남지역 산란계는 486만9183마리로, 전년보다 8만7581마리(-1.8%) 줄어들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설 성수품 가격 상승 현황



품목별 증감률	전년 대비	사과	배	달걀 10개	흰떡 1kg	꽃감 9개	밤 1kg
	(16,338원)	71.3%	51.9 (21,661)	33.7 (2,193)	19.6 (5,841)	14.0 (8,775)	13.5 (8,592)

설 차례상 비용 36만2680원

전통시장은 26만3283원

AI·긴 장마에 전년비 14% 상승

올해 설 명절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차례상 준비 비용이 전년보다 14% 가량 올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달걀 가격이 33.7% 오르고 사과(71.3%), 배(51.9%), 쌀(13.2%) 등 주요 농산물 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21일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6만3283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2680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전통시장은 지난해 23만972원보다 14.0%, 대형유통업체는 31만7923원보다 14.1% 오른 수준이다.

간소화 차례상 기준으로는 전통시장은 11만7163원, 대형유통업체는 15만2863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0%와 13.7% 상승했다.

올해 겨울 생산이 양호한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가격이 지난해 조사 시점(2020년 1월8일)보다 하락했지만,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일과 공급이 감소한 소고기와 달걀 등 축산물 가격은 강세를 나타냈다.

전통시장 기준 떡국에 들어가는 흰떡 1kg 가격은 5841원, 소고기 양지 300g 가격은 1만3215원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19.6%, 4.2% 올랐다.

대추 400g은 5827원, 밤 1kg은 8592원, 꽃감 9개는 8775원으로 각 2.7%, 13.5%, 14.0% 상승했다.

AI 확산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달걀은 10개에 2193원으로 33.7% 올랐다.

배와 사과는 5개 기준 51.9% 상승한 각 2만1661원과 71.3% 뚝 1만6338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무 100g은 125원으로 39.9%, 배추 300g은 275원으로 41.1% 하락했다.

정부는 설 성수품의 수입 안정을 위해 2월10일까지 만·관 합동 ‘설 성수품 수입안정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세관, 수출입 특별통관 지원 2월10일까지 관세 업무 연장도

광주본부세관은 오는 2월12일까지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에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통관 지원기간에는 명절 성수품과 긴급한 수출입 원자재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공휴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및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들은 신속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물품은 집중 검사하여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물품을 선적기간 내 선적하지 못해 미선적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할 방침이다.

또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대비해 오는 28일부터 2월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 관세환급 업무 처리시간을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이밖에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납세액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도 지원한다.

설 명절 관세행정 관련 문의사항은 수출입통관(062-975-8046), 보세화물(062-975-8043), 환급(062-975-8062)로 상담받으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식품안전 특별점검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왼쪽 세번째)와 광주검사국(국장 유태기)은 최근 지역의 한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축산물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벌였다. 광주본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광주지역 농산물 유통사업장을 특별관리한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형구·왼쪽 세번째)와 광주검사국(국장 유태기)은 최근 지역의 한 하나로마트를 찾아 농축산물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벌였다. 광주본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광주지역 농산물 유통사업장을 특별관리한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im e Bsong Solar Energy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